

불법 쓰레기에 죽어가는 무안 청정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인 무안군 환경면 오류리 내 국유지가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면서 인근 청정 해역을 오염시키고 마을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면사무소는 해결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환경면 바다 인근 국유지 주민들 쓰레기 투기 방지

200평 물웅덩이 폐수 환경 오염...지자체 '나몰라라'

‘천혜의 청정 갯벌자원’을 지닌 무안군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쓰레기장 처리를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바닷가 주변 국유지 내에 불법쓰레기들이 쌓이면서 폐수 등이 인근 청정해역까지 흘러가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22일 무안군과 환경면 주민 등에 따르면 바닷가 인근인 무안군 환경면 오류리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가 불법 쓰레기장과 소각장으로 악용되면서

바다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 무안군 환경면 오류리 392-4번지 내 1774㎡(537평) 규모의 국유지에는 각종 불법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으며, 특히 200평 규모로 조성된 웅덩이에는 인근 바닷물과 쓰레기 폐수가 뒤섞여 심한 악취와 함께 각종 해충이 득실거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한 지역민이 한국자산공사와 임대차 계약도 없이 농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웅덩이를 파놓은 뒤 바닷물이 스며들자 방치해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이 불법쓰레기로 뒤덮이면 서 인근 마을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고 소각하는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쓰레기 소각 등으로 배출된 폐기물이 빗물 등에 쓸려 웅덩이로 모여든 뒤 바다로 흘러가면서 해양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환경면사무소에 웅덩이 내 폐수로 환경오염은 물론 마을주민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을이장에게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등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면사무소 J면장은 “이곳뿐만 아니라 해안가 주변 여러 곳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

다”며 “불법 웅덩이는 무안군청과 협조해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고 불법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단호하게 과태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J면장은 이후 마을이장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한 뒤 해결책 마련은커녕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쓰레기 투기 금지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들까지 야밤을 틈타 온갖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에서 이곳을 임대한 뒤 마을과 바다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함평군 내년 농촌개발사업 69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 4건 선정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 4건 68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이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농촌을 경제활동과 공동체활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손불면에 4년간 57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대동면 아차동마을에는 3년간 4억1000만원을, 함평읍 구기산마을에 2년간 5억원을 투입한다.

함평군은 이와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2억원도 확보했다.

함평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색깔 있는 마을 지정, 농촌현장포럼 개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발표회 개최 등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안병호 함평군수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은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성과를 거뒀다.

김재진 함평군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해에도 지역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5억3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 양림양계농장 이웃돕기 300만원 기탁



함평지역 양림양계농장(대표 정승안)은 최근 함평군에 불우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농특산물 직거래로 군민소득 48억원 ‘성과’

함평군 직매장 개설 등 공격적 마케팅...전년보다 15% 늘어

함평군이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거래로 4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직거래 총매출은 48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42억5100만원보다 15%나 늘어나는 등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함평군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게 함평군의 설명이다.

함평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2년 조직개편을 통해 농특산물판

촉담당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이동판매차량을 구입·운영하는 등 소비자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에만 총 118회에 걸쳐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530여개 농가가 참여해 15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도 거뒀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나비축제와 국화대전에도 농특산물 장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90여 농가가 참여해 10억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국내 대형 온라인마켓에 브랜드숍을 개설해 10억1500만원의 매출을 거둬, e-마케팅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선하고 저렴한 농특산물

을 현지에서 직거래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매주 두 차례씩 잔류농약 320종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병호 군수는 “직거래 활성화가 현재 농산물유통이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유통망 확대와 직거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교육청 초·중생 32명 학생뮤지컬 동아리 발표회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관내 초·중학생 32명으로 구성된 ‘천년의 빛 영광 학생뮤지컬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뮤지컬에 관심 있는 학생과 동아리를 구성해 마련됐다.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영형 영광교육장은 “뮤지컬이라는 활동 중심의 종합예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적 소양이 풍부해지고 무대 경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존감도 키우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사랑이 피어나는 ‘신안 다문화센터’

제주도 역사탐방 등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호평

신안군 다문화센터는 “최근 제주도에 서 2박 3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 37명과 함께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이 모락모락 가족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향상을 통해 서로 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고민하고 있는 가족 간 문화 갈등에 따른 관계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제주도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그동안 어려웠던 일을 서로 위로하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안군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다문화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이성선기자 ssllee@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병원	상가 주택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9천 서구 금호동 / 2층 / 대지 57평 건물 65평 / 안집 32평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층 / 중마초등학교 서측	수익형 빌딩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첨단 상가 15억 월세 1000만원	상가	상가	모텔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전원주택	수익형 주택 부지	모텔 부지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층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		